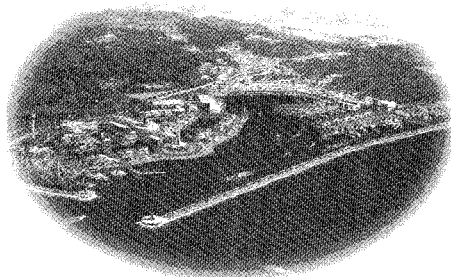


※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의 배경과 전망

어촌 경쟁력 향상의 필수 SOC

관광수요 흡입 · 자원관리형 어업 지원도, 5개항 선정 시범 실시 계획



지 금까지 어항개발은 방파제, 물양장 등 수산업 위주의 기본시설 개발에만 그쳐 어항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최근엔 신 해양질서 정착 및 WTO/DDA 협약 등으로 어업인들에 대한 정책 보조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등 어업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어항 · 어촌 SOC 시설투자로 간접 지원을 통한 어촌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함께 주 5일 근무제 등 국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로 어항 · 어촌 관광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또 최근 수산업이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어항도 환경친화적 개발을 주문받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신규어항을 다기능 종합 어항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이전부터 개진되고 있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어촌관광 · 교통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어항 배후부지내 위판장, 가공유통시설, 관광 판매시설도 체계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또 유람선 · 유어선 부두 시설 등 해상관광 기반시설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녹지공간과 낚시터를 조성하고 친수 방파제 등 친수시설 설치로 관광수요에 부응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활어보관 시설 수역 확보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생산의 장으로 어항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즉 어촌과 어항을 연계개발해 수산업 효율성 제고와 해양 관광 기반 시설 확충으로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꾀하자는 것이다.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의 전체적 방향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정비 대상항을 이용자 편의 위주로 시설하고 기존어항도 과감한 정비와 확장을 실시해 그 수요에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용 수역 확장, 접안시설 보완, 하수유

입차단 관거 설치, 친수공간 제공 등 필요 시설들을 확충하고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가로등 설치 등 어촌 배후 시설 조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계속 투자할 37개항을 2007년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우선 어선 안전수용률이 낮은 서 · 남해안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잠재력이있는 어항을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시범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기공식을 가진 대표항과는 별도로 동 · 서 · 남해에 우선 5개항 정도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대상항 선정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행해 올 10월까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5개 시범 대상항은 지역적 특성 및 개발 잠재력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후 선정하게 된다.

이번 대표항 기공식이 어항개발의 인식 전환의 시발점이 되고 수산업 전반의 발전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정화의 지름길!
축적된 경험 · 전문성 · 기술력의
Know how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침적폐기물 수거작업 (군산 선유도)

수일3호 (다목적 침적 폐기물 인양선)

수일종합환경(주)

회 장 김 수 일 (해고13N)
사 장 김 수 남
전 무 최 승 재 (수대68學番)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2-3 창원빌딩 2F
TEL : (051)463-5828(24 HRS)
FAX : 467-2125 TLX : K52034 SYEEC
E-mail : sooil5828@hanafos.com

수일해저개발(주)

- 주요업종
- ◎ 어장경역 정비업
 - ◎ 해상악물운송업
 - ◎ 해상오염 방제업
 - ◎ 선박임대업 (조선선 및 크레인 부선)
 - ◎ 유장정소업
 - ◎ 선박구난업(1급)
 - ◎ SK주식회사 협력업체 등록